

◇무구스님은, 자나깨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수행을 지성으로 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무구스님은?

무구 스님은 1929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났다. 귀한 손자가 태어나자 조부는 사주를 세 번이나 보게 했는데 나중에 '중 될 팔자'라는 사주가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스님이 되고 싶어 열일곱에 김용사로 갔다. 처음엔 받아주지 않아 부목방에서 잠자면서 걸레로 마루도 닦고 마당도 쓸고 하니까 당시 강사였던 화산스님이 지켜보다 초발심자경문 암기를 시키는 등 자질을 보고 출가시켰다. 예불 불공 시식 등 불교의식 공부를 마치자 화산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을 수 있었다.

강원에 들어간 스님은 이미 진척돼 있는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 밤이면 큰 화로에 재를 담아 강당 지대방에 가져다 놓고 몰래 공부하곤해 나중엔 월반까지 했다고 한다.

"부젓가락으로 재를 들쑤셔 훅 불면 재가 벌개지니까 그 빛으로 책을 읽곤 했는데 그때는 젊어 눈이 좋아 그런지 책글씨가 다 보여. 그렇게 밤새 공부하고 아침 기침종 치면 나가곤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강원을 졸업하고 선방을 10년정도 다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청담스님의 추천으로 설악산 신흥사 주지를 하기도 했다. 당시 모 스님에 의해 신흥사 소유 10만평 땅이 팔린 것을 알게된 스님은 재판을 해 신흥사에 되찾아 주기도 했다.

스님은 태허 스님(현 본원종 종정) 등과 89년 본원종을 창종하고 현재 중앙원로의장으로 있다.

17세때 김용사로 출가…본원종 원로의장

요즘 유덕사에는 '절대 사수, 유덕사는 영원하리라' '과천사암연합회는 끝까지 유덕사를 지키겠다'는 말이 쓰여진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이 근처로 기무사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절이 폐쇄될 위기에 놓이자 신도들과 과천사암련이 유덕사를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나서고 있는 것. 무구스님의 소원은 한가지다. "그냥 여기서 목탁 치며 기도하다 죽었으면 하는데…"

들면 업장소멸



발을 가꾸는 무구스님.

결국 마음이 바로 잡혀야 되지 른 도리가 없어요. 참선수행자 에는 자상하게 일러 주고 점검 주는 선지식이 옆에 있어야 는데 그게 어려운 일 같아요"

위전 일을 잠시 회상한 스님은 그냥 으로만 하는 염불은 백날 외워도 헛 이라고 강조하신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다면 부처님 명호는 본래 자기 참이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불을 하면 저절로 마음이 정화 고 우리 마음이 정화되면 그만 세상이 청정해지고 우주가 정 된다고 믿으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르려면 부처님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염불도 그냥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일념으로 믿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로지 염불 삼매에 빠져야 업장이 녹아집니다."

염불삼매에 들려면 취미삼아 하는 것처럼 하다 말다 하지말고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그래야 망상이 생기지 않고 저절로 입에서 염불이 나온다. 일하면서도 휴식시간에도 자기전에도 늘 부처님을 생각하며 염불을 해야 한다.

시냇물에 떠내려가는 배춧잎 하나를 줍기 위해 10리를 따라 내려왔다는 옛날 큰 스님 이야기가 전할 만큼 절에서는 고춧가루 한 톨, 종이 한 장 함부로 낭비하는 일이 없다. 원로 스님들일수록 절약에 철저하다. 옛날 절살림이 몹시 어려웠으므로 철저하게 검약하며 사는 법을 몸에 익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재인 시줏물을 함부로 축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사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구스님도 철저하다. 자가용이 없는 스님은 혹 외출을 할 때도 큰 길까지 나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큰 길까지 가려면 십리도 넘는 먼 거리지만 스님은 혹 누가 중간에서 차를 태워준다고 해도 거절하신다. "다리 멀쩡한데 걷는게 좋다"는 것이다.

멀리 출타를 하더라도 신도집 신세를 가능한 지지 않으려고 한다. 부득이 신도들 집에 들릴 일이 있을 때 신도들이 거마비라며 드리는 경우가 있다. 스님은 거의 받지 않지만 부득이 받을 경우 그 돈으로 꼭 향, 초를 사서 불전에 공양 올린다.

"정재를 소중히 써야 합니다. 내가 출가할 당시는 물자가 귀한 때니까 은사스님께서 당신이 입던 장삼을 줄여 출가 기념으로 주셨지요. 그래서 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입었습니다. 요즘엔 뭐든지 흔해서 절집에서조차 절약정신이 희미해 졌어요. 요즘 같은 물질위주 세태일수록 정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불자들부터 물질적인 행복추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물질적 쾌락만을 좇다보면 정신은 황폐해지고 허전해 지기 마련이기에 이것처럼 경계해야 할 일도 없다는 말씀이다.

스님은 재가불자들이 수계할 때 받은 오계만이라도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하신다. 또 가능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다. 고기라는 것이 동물들이 강제로 죽임을 당하면서 분노에 찬 독을 내뿜어 몸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원래 채식동물인 인간은 대장이 긴데 고기 먹으면 그 대장에서 소화되어 나가는 기간이 길고 따라서 고기를 소화시키면서 내뿜는 독소가 간장에 침입한다는 것이다. 요즘 간암, 간경화 등 간장병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우리 사회에 만연된 육식문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육식을 안 하면 불살생계를 지켜서 좋고 건강에도 좋으며 채식을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 진다.

염불이든 참선이든
일념으로 하세요

불법 따르려면
부처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받아들여야

스님은 요즘 불자들이 수행에 관심을 보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며 참선이든 염불이든 일념으로 하기를 강조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신묘한 진언이지만 수천번을 외워도 마음이 다른데 가 있으면 아무 영험이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창공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불법을 만났으니 그냥 저냥 안개와도 같은 허욕에 휩싸여 목적없는 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불제자다운 참다운 서원을 세우고 인과법을 믿으며 수행을 게을리 말기 바랍니다."

글=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명성스님

내가 살아 있는 동안 / 다 미칠 수 있는 일이란 / 이 세상에 없다.

진정코 이 세상이란 / 몇 천년이나 걸려야 / 집 한채 지을 수 있음이여

이 시는 고은선생의 '눈물을 위하여'이다. 한국이나 중국의 선사상이 한 생에 몰록 깨달을 수 있다는 돈오(頓悟)사상이라면 인도의 선사상은 자타카이야기를 비롯해 소승사과(小乘四果)의 수도론에서 윤회를 하는 삼계(三界)가 설정되어 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인도선사상은 한 생이 아니라 몇 생을 거듭난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점수(漸修)사상이다.

이처럼 전세(前世)에 닦은 수행의 결정체로 지혜와 복덕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 스님이 계시다. 불가에서 회자되는 말 중 '지혜가 아무리 수승해도 복덕이 없으면 대중(학인)이 모이지 않는 법'이라 했다. 그 어른은 청도 운문승가대학장 명성스님인데, 내가 중노릇하는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선지식이기도 하다. 10년을 훌쩍 넘기고 그리고 3년, 저 시간의 강을 넘어 이제자는 절집밥만 축내는 '밥충'으로 남아있건만, 스님께서는 30년 넘게 젊은 학인들을 보듬는 넉넉한 품의 호거산처럼 여여한 모습 그대로다.



만공스님으로부터 '본공(本空)'이라는 법호를 받은 비구니스님이 계셨다. 본공스님은 만공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을 만큼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고, 효봉 · 한암 등 선지식을 친견하며 평생을 제방에서 치열한 구법행각으로 일관한 수행자셨다. 1955년 본공스님께서 해인사 국일암에 머물던 시절, 손주상좌로 명성스님을 받아들였다. 이때 본공스님은 명성스님이 '훗날 대강백이 될 것'을 미리 관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나는 스님을 생각할 때마다 근엄하고 엄격한 스승의 모습은 떠오르지 않는다. 스님을 모시고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학자의 모습으로 보다 인간적인 체취가 물씬 풍기는 어른으로 여전히 내 가슴에 남아있음이다.

운문사 도량에 가 본 사람이라면 옛 절 다운 풍모는 느끼지 못할 것이다. 명성스님께서 도량 전체를 가꾸고 불사를 잘 하여서 운문사는 그 어느 곳보다도 질서정연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모습 뿐 아니라 운문사는 규칙이나 제도도 짜임새가 완벽하다. 나는 이러한 운문사의 풍모가 학장스님의 평소 수행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운문도량의 질서처럼 스님께서는 수행자의 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을 만큼 당신관리에 철저하고 한치 어긋남이 없는 엄격함으로 평생을 일관하셨다. 스님은 '미리미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한치 어긋남 없는 평소의 풍모에서 붙여진 별명이다.

보통 일반인들은 약수터나 수각에 바가지를 엎어둔다. 운문사 도량 수각에서는 바가지를 엎어두어서는 안 된다. 청소를 할 때도 의자 등을 책상 위에 엎어두거나 신발을 엎어두는 경우 스님께서 보시면 경책하신다. 스님께서는 "사람도 거꾸로 세워두면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모든 우주 질서는 가지런해야 하고 바르게서 있어야 한다. 상(上)을 향해 바르게 두는 것도 다 수행"이라고 하신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운문사에서 금강경을 공부할 때다. 스님께서 수업 전에 우연히 학인들 지대방에 들어오시게 되었다. 큰 방과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지대방은 학인들이 몸이 불편할 때 쉬기도 하고 자유로이 대화를 나누는, 휴게실이나 다름없는 장소이다보니 물건들이 어지럽게 놓여있다. 어지러운 모습을 보신 스님께서는 "어찌 수행하는 학인들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못하느냐, 마음을 이렇게 놓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한치 어긋남없는 여법함으로 일관

"순간순간 자신의 발 밑 살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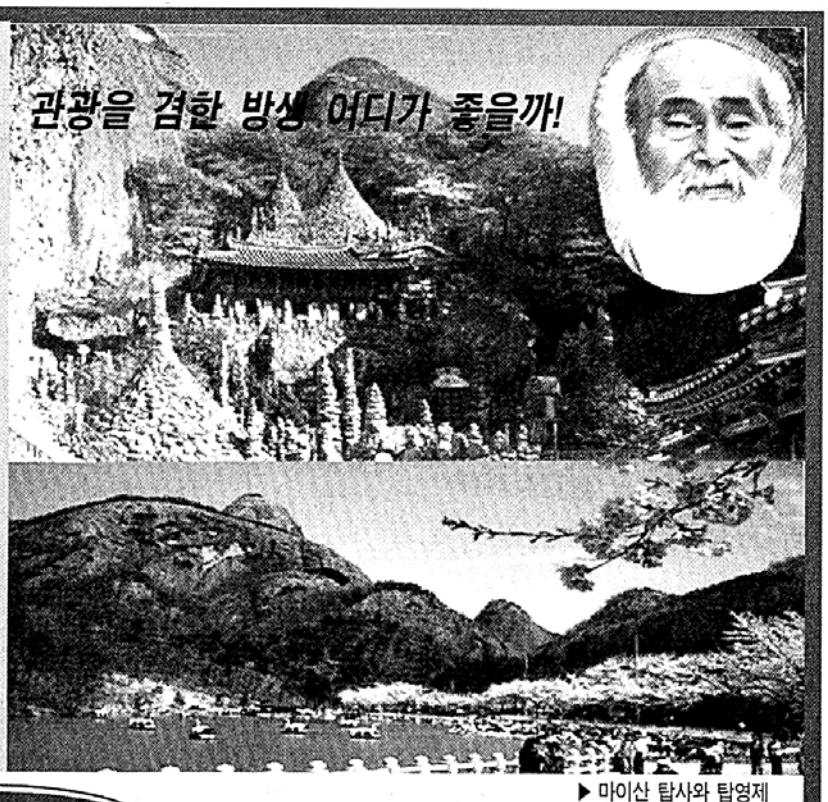
걱정하셨다.

운문사에서는 예불 후 큰 방으로 돌아갈 때도 줄을 맞추어야 하고 가사를 수할 때도 바르게 해야 한다. 흩어진 가사를 추스리고 줄을 맞춤으로써 "수행자는 수시로 자세를 바르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자신의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며 순간 순간 자신의 발밑을 살피라(照顧脚下)"는 스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살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하지 않는가. 나무를 심듯 학인을 지도하는 스승다운 사상으로 제자들에게 평생을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일러주셔야 한다는 것이 당신의 지론이다. 최근 운문사를 졸업한 후배스님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스님께서는 운문사 불사를 할 때 학인들에게도 불사비를 내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학인이 무슨 돈이 있겠느냐마는 천원이라도 불사비를 내어, 지혜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행자로서 보시를 행해 복덕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

이번호부터 8회에 걸쳐 '스님이야기'를 연재하는 정운스님은 82년 명우스님을 은사로 성심사에서 출가했다. 스님은 89년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97년 동국대서 석사학위를 받고 2000년 동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 니련선하원 한주로 있으며 동국대 선학과에 출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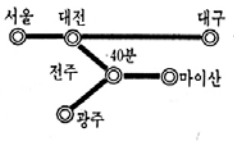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

선무도 화랑 수련회

신라 화랑정신의 고장인 경주 골굴사의 禪武道 大金剛門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2002년 7월 1일부터 2개월간(1주, 2주, 1개월)
▶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종 사회 단체 위탁 연수)
▶ 수련내용 : 참선, 선요가, 선무술, 전통문화 (무용, 다도)
▶ 동 참 금 : 학생(1일 – 2만원, 1개월 – 60만원) 일 반(1일 – 3만원, 1개월 – 65만원)
▶ 접수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 수 련 비 입금 계좌 : 농 협 721107-52-037300 예금주) 설 기 준
▶ 준 비 물 : 개인 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필기도구, 우산

1천 5백년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 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대 자연 속에서 불교와 선무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화랑정신을 배운다. 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홀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일 과 표

4시	기상, 예불 (불참시에는 3천배 참회 및 전 대중이 1일 불식)	13시	독서와 사색
		14시	오후 수련 및 전통문화 강습(학생)
5시	좌 선	16시	운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6시	조깅, 등산	18시	저녁공양
7시	아침공양(발우공양)	19시	예불후 학생은 자율학습 및 참회록 쓰기
9시	오전수련		
11시	108배 참회기도(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 기림사, 감은사지, 문무대왕 수중릉(봉길해수욕장)성지순례

※ 입산 후 개인 외출, 이성교재, 술, 담배, 간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어길 경우, 3천배 참회 및 죽비나 회초리로 체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golgulsa.com 또는 sunmudo.com
※ 수련회 참가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스님, 사범등 지도진 10명, 무용강사 4명(현직교사 및 전공자), 다도강사 2명(부산여대 다도 대학원 졸업생)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 굴 사
세계 선무도 협회 大金剛門 선무도 대학